

##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6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누르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세존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生尊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4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 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 45. &lt;보기&gt;의 내용을 근거로 ⑦의 원리를 오늘날에 맞게 적용한 것은?

## &lt;보기&gt;

한글과 한자는 음절 단위로 끊어 적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알파벳은 음소 문자라는 점에서는 한글과 같지만 문자를 운용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음절 단위로 끊어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글과 알파벳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                    |                    |
|--------------------|--------------------|
| ① London에 살아요.     | ② 런던(London)에 살아요. |
| ③ London(런던)에 살아요. | ④ Lon런don던에 살아요.   |
| ⑤ 런Lon던don에 살아요.   |                    |

## 46. ⑦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lt;보기&gt;의 주장을 도입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lt;보기&gt;

국어에는 [f]에 해당되는 음이 없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영어의 ‘file’과 같은 단어를 ‘파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의 발음이 [f]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적인 기호 ‘o’를 사용하여 ‘퐁’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① 외국어의 다양한 문자를 적기 위해 많은 부가적 기호가 개발 된다.
- ② 표기하려는 음이 국어에 없는 음이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 ③ 외국어 발음이 부자연스럽게 통일되므로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외국어의 정확한 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므로 국어의 문자 생활이 편리해진다.
- ⑤ 영어의 file을 ‘퐁 | 일’로 적게 되므로 국어에 새로운 음이 만들어 와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쉬워진다.